

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립현충원에 안장

‘6일 國葬’으로 엄숙한 추모물결 정치권도 국민들도 하나가 되어~



50년 정치인생을 마감하고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 영면한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국장으로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 마련된 빈소에 있던 마지막을 애도하며 4개종단의 종교의식이 있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의식에 따라 김삼환 목사 기도와, 엄신형 목사가 축도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한승수 국무총리, 김형오 국회의장, 전두환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여야 국회의원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11국 조문 사절단 등이 참석 국민들과 함께 헌화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종교는 천주교이지만 고인은 한국교회와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된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 국장으로 엄숙히 치러진 6일 동안 고인의 빈소에는 교계, 특히 그와 함께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인사들은 깊은 애도의 뜻을 감추지 못했으며, 우리 민족의 숙원인 화해와 통합의 바람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 민족과 정치인들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화해와 통합의 꽃 피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생을 정치인으로서 격동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 속에 민주화와 남북평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은 국민과 함께 애도하며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길 기도한다”고 애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남한 북한 사절단을 23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접견, 30여 분 동안 남북이 처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메세지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90이 다되어 허물어져가는 육신 속에도 당신은 끝까지 나라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이라는 숙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번영을 이뤄야 하건만, 슬픈 한국 현대사의 흐린 날들 속에서 당신의 가슴은 새까만 숲이 되었습니다. 절로 길고 더딘 나날들이었음에도 그렇게 인동초처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음을 역사는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겼음만 앞서가자!

너무 높은 이상에 집착하다가 현실을 놓치는 지도자도 있고, 국민에게 어떤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현실에 묻히는 답답한 지도자도 있어 아쉬운 현대사에서 당신은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상

설명한 뒤 이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23일 주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 마련된 빈소에 2500여명의 조문객들이 고인의 마지막을 애도하며 4개종단의 종교의식이 있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의식에 따라 김삼환 목사 기도와, 엄신형 목사가 축도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한승수 국무총리, 김형오 국회의장, 전두환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여야 국회의원들,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11국 조문 사절단 등이 참석 국민들과 함께 헌화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종교는 천주교이지만 고인은 한국교회와 민주화 운동으로 연결된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 국장으로 엄숙히 치러진 6일 동안 고인의 빈소에는 교계, 특히 그와 함께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인사들은 깊은 애도의 뜻을 감추지 못했으며, 우리 민족의 숙원인 화해와 통합의 바람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 민족과 정치인들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화해와 통합의 꽃 피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생을 정치인으로서 격동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 속에 민주화와 남북평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은 국민과 함께 애도하며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길 기도한다”고 애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남한 북한 사절단을 23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접견, 30여 분 동안 남북이 처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메세지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90이 다되어 허물어져가는 육신 속에도 당신은 끝까지 나라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이라는 숙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번영을 이뤄야 하건만, 슬픈 한국 현대사의 흐린 날들 속에서 당신의 가슴은 새까만 숲이 되었습니다. 절로 길고 더딘 나날들이었음에도 그렇게 인동초처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음을 역사는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겼음만 앞서가자!

너무 높은 이상에 집착하다가 현실을 놓치는 지도자도 있고, 국민에게 어떤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현실에 묻히는 답답한 지도자도 있어 아쉬운 현대사에서 당신은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상

90이 다되어 허물어져가는 육신 속에도 당신은 끝까지 나라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이라는 숙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번영을 이뤄야 하건만, 슬픈 한국 현대사의 흐린 날들 속에서 당신의 가슴은 새까만 숲이 되었습니다. 절로 길고 더딘 나날들이었음에도 그렇게 인동초처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음을 역사는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반겼음만 앞서가자!

너무 높은 이상에 집착하다가 현실을 놓치는 지도자도 있고, 국민에게 어떤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현실에 묻히는 답답한 지도자도 있어 아쉬운 현대사에서 당신은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상



또한 NCC는 “이런 업적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를 했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인물이었다”면서 “하나님께서 고인의 영혼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모든 장애를 제거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교회 연례회와 기독교실천운동에서 각각 논평과 성명서를 내었으며, 교계 지도자들도 애도를 표하여 “마음 아파다” 비록 종교는 달랐지만 고인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같이하며 동지적 길을 걸었던 교계 인사는 물론 고인의 생전에 함께 교분을 나눴던 많은 목회자들도 고인의 서거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한국교회 연례회와 기독교실천운동에서 각각 논평과 성명서를 내었으며, 교계 지도자들도 애도를 표하여 “마음 아파다” 비록 종교는 달랐지만 고인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같이하며 동지적 길을 걸었던 교계 인사는 물론 고인의 생전에 함께 교분을 나눴던 많은 목회자들도 고인의 서거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사

이제 편히 쉬소서, 국민의 대통령님!

김대중 전 대통령님!

을 꿈꾸며 너무 앞서가지는 않는 것 - 조금 더 디타라도 국민과 함께 반겼음만 앞서가자는 당신의 정치 철학은 진정한 현실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열정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정의, 평화, 민주주의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의 공감 속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중환자실에서 위급한 소식

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 졸이다가 오늘의 비보에 떨쳐 주저앉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서 어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평화, 민족 공영,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선을 넘는 애정으로 터득한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당신의 지혜와 국제적 감각이 절실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누구에도 불구하고 헌 권력의 비민

주적이고 반동일적 행태에 대해 울분을 소리내어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편히 쉬소서!
 우리 역사에 대한 모든

영려와 사랑을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안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그토록 염원했던 철천벌 거리의 통일은 어떤 난관도 넘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과제는 남은 우리의 몫입니다. 언제까지나 비지 않을 것만 같았던 당신의 빈자리는 이 민족의 영혼을 날카롭게 깨우치는 살아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소서, 우리 국민의 대통령님!

서재일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사설

신종플루 공포, 타미플루는 얼마나 확보했나!

국내에서도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했다. 8월 15일 첫번째 사망자 이후 16일에 두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첫 사망자는 외국에 다녀온 뒤지만, 두번째 사망자는 순수 국내인이다. 외국인과 접촉이 없이 걸렸고 두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갑자기 두려움이 많아졌다. 앞으로 있을 후폭풍에 심각한 공포가 엄습해온다.

그렇다면 신종플루란 무엇인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하는 기생체다. 헤마글루티닌(H-antigen : hemagglutinin : 호흡기 점막세포에 침투하는 역할)과 뉴라미니다제(N-antigen : neuraminidase : 감염된 세포에서 나가는 역할) 형태의 차이를 구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수용체에 따라 H형은 16가지, N형은 9가지로 구분된다. 이것들이 재조합(16+9=144)되어 변형, 총 144가지의 인플루엔자 종류가 가능하다. 이렇듯, H형과 N형이 바이러스 내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2종류의 폐지인플루엔자와 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사람인플루엔자가 합쳐서 변이된 바이러스가 신종플루다.

문제는 증상이다. 왜냐하면 증상은 일반 계절성 독감과 똑같다. 기침, 콧물, 인후 통증과 함께 심하면 열이 나고 정신 근육통이 나타난다. 전형적인 감기몸살이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지금까지 감기, 몸살이면 가까운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대로 치료해 왔다. 잘 낫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며칠 동안 낫기도 한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요즘 독감이 특하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한다. 이제는 혹시 신종플루가 아닌가 하며 의심해야 한다. 괜히 버티다간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종플루는 전염성이 강하다. 공기감염이 아닌 환자의 비말(飛沫: 기침 시 뿜어 올리는 물방울)에 의해 감염이 되는 형태다.

그러고 보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이것 혹시 인간 사회를 말종시키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신종플루에 걸리면 타미플루(Tamiflu)라는 약밖에 치료할 수 없다. 스위스의 제약회사 로슈홀딩(Roche Holding)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독점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다. 경구제인 타미플루는 증상이 보이면, 48시간 안에 복용을 해야만 한다. 그나마 만이 약효가 있다. 그런데 걱정이 많다. 로슈홀딩이 10년 동안 생산시설을 팔가동을 한데도 세계 인구의 20% 밖에 복용할 수가 없다고 한다. 수요량에 비해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독감에 세계 모든 나라가 타미플루를 보유하기 위해 혈안이다. 또다른 전쟁을 치루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대체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기사가 많다. 첫째 - 손을 자주 씻자. 눈, 코, 입 만지지 말라. 둘째 - 재채기를 할 때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해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아예 안가는 것이 상책이다. 세상이 어디 그런가. 좀더 확실한 것이 좋다. 그것은 타미플루를 얼마나 확보해 놓았나 그것이 중요하다. 도무지 불안해서 안되겠다. 정부가 이 불안감을 책임져야 한다. 신종플루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든 간에 걸릴 수가 있다. 나중에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말고 미리 방어해야 한다. 어쨌든 타미플루만이 치료하는 기적의 약이라고 하니 많이 확보해 놓았으면 한다.

처서가 지나고 나니 제법 밤기운이 쌀쌀하다. 졸졸하고 기침하면 큰 걱정이다. 감기면 괜찮은데, 신종플루라고 하면 이것 참! 낭패가 아닐수가 없다. 건강한 한국, 건강한 국민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지는설위원 서진갑신교회 최정희 목사 cjanghee@kbs.co.kr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제94회 정기총회

• 일시: 2009년 9월 21(월) 오전11시 ~ 22(화) 까지

• 장소: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소강당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문의 02-741-4361〉



총회장 장영기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제94회 정기총회를 9월 21~22일까지 서울 종로 5가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성중회로 열립니다. 중대 여려분을 보내고 교단발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며 초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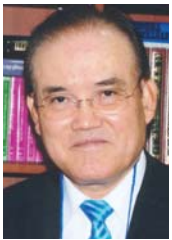
~총회장 장영기 목사 외 임원들~

오시는 길



웨신총회
 www.웨신총회.ne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01호)
 전화 02) 835-2607 팩스 02)835-2628 E-mail : weshinch@korea.com



그리스도의교회 2009 전국대회 ‘교회위상 회복에 앞장설’

결속력과 화합으로 한국 그리스도의교회가
‘2016년 세계그리스도인대회’를 한국에서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회장 이강평 목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충주시 충주호리조트에서 ‘2009 그리스도의교회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교단의 화합과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내의 화합운동의 확산과 그리스도의교회 위상강화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동 협의회의 전국대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행 9:31)라는 주제로 말씀충만과 영성회복을 위한 영적 충만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성도의 삶을 극대화 하여 초대교회 성도의 열정을 본받고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세 번째 프로젝트를 되었다.

동 협의회 회장 이강평 목사(서울기독대학교 총장)는 “지금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는 한국교회 내에서 놀라운 정도로 눈부신 성장과 부흥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교회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교회 장정과 장점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라며, “교단분열로 접철된 오늘날 침체된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활력과 미래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그리스도의교회가 올바른 정체성 확립과 위상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등, 한국교회 내에서 올바른 미래교회의 이정표를 제시하



이날 동 협의회 총무 김탁기 목사는 “그리스도의교회가 지난 3년에 걸쳐 성장과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교회와 목회자들의 일체된 결속력과 화합을 이끌어 냈다”면서, “앞으로 한국 그리스도의교회가 ‘2016년 세계그리스도인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 다짐을 하며 사역을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그 동안 그리스도의교회를 위해 헌신한 공로자들에게 시상식을 갖고 수상자로는 △십자환경대 훈장에 최윤권 목사(서울기독대 명예총장), 장성만 목사(동서대학설립자),故 김은석 목사(부강교회),故 최요한 목사(목포교회), △환원신촌장 안재관 목사(미국 LA 새빛교회),故 최순국 목사(미국 시카고교회), △환원광도훈장故 김수자전도사(브라질 상파울로교회), △환원사랑훈장 김복수 권사(미국 LA 월서그리스도의교회) 등이 각각 수상했다.

동 대회 사무총장 엄민동 목사는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성장과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면서, “성장과 부흥이 접철된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말씀과 성경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리스도의교회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유종의미를 거두는 대회였다”고 말했다.

동 협의회는 회장 이강평 목사가 대회장 환영의 말씀을, 준비위원장 육윤식 목사가 인사말을, 추사 장성만 목사, 최윤권 목사, 개회예배말씀 최윤권 목사, 폐회예배말씀 김호규 목사, 감리설 목사,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윤창기 목사(에음신학교총장),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국회의원), 오지현 형제(코미디언) 등이 강사로 나섰다.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는 오늘날 침체에 빠져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성령으로 돌아가자’라는 화합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미래교회의 올바른 비전과 성경적인 교회상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이미 그리스도의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정체성 회복과 위상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2007년은 그리스도의교회 제75주년을 준비하며 ‘정직한 그리스도의교회’를 지향했으며, 2008년에는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지적인 그리스도의교회’를 목표로 위상강화에 나섰다. 동 협의회는 이번 ‘그리스도의교회 2009 전국대회’를 통해 세 번째 프로젝트인 ‘동적인 그리스도의교회’를 목표로 전국의 그리스도의교회들이 함께 모여 미래교회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일치된 교회부흥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는 큰 성과”를 가져왔다.

이번 그리스도의교회 2009 전국대회의 강사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대 교회 중의 하나인 사우스이스트 그리스도의교회 밥 러셀목사가 주강사로 나섰다. 그 외에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에음신학교 총장 윤창기 목사, 한나라당 장제원 국회의원, 개그맨 오지현 등이 특별강사로 나섰다. 이날 전국대회에서 밥 러셀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성도의 삶과 죄에 대하여 또한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러셀목사는 1966년 미국 캔자스주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이스트 그리스도의교회에 부임해 50명의 성도로 시작해서 2003년 주일예배에 2만3000여명이 참석하는 교회로 부흥시켜 미국교회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다. 동 교회는 현재 미국 사회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평가받고 있다.

오직 여호와를 찾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2009 양수리수양관 여름산상성회



▲피영민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양수리수양관이 주최한 여름산상부흥성회가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양수리수양관에서 1800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성도들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주제에 부응하며 여호와를 찾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다. 성회에서는 피영민 목사(강남중앙교회)를 비롯해 장경동 목사(중문교회), 양병희 목사(영안교회), 이영환 목사(한빛제일교회)가 강사로 말씀을 전해 참석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

피영민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인생을 잘 살려면 맥을 잘 잡아야 한다. 인생과 신앙 생활의 맥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비로소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전하며 이번 기회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은혜로운 진회 말씀들
장경동 목사는 첫날 저녁 집회를 통해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축복이 온다.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여야 하며 하나님 중심이여야 한다. 크리스천은 이 땅에 축복의 문화, 구원의 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집회를 통해 “인생은 흥망성쇠(興亡盛衰)로 흘러간다. 그러나 우리는 흥이 망으로 가지 않고 성이 쇠로 가지 않게 하려면 무언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홍홍성성(興興盛盛)으로 인생을 살려면 첫째, 겸손하여 스스로 작게 여겨야 하며,

둘째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말고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피영민 목사는 새벽집회를 통해 “신구약 성경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 주제이다. 위대한 다윗도 항상 여호와를 찾았다. 특히 고통과 포로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생 존의 위기 중에도 찾았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원수와 악령에게서 구원을 주시며, 기쁨과, 깨달음과 치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신다”고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통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이다. 체험은 바로 성도들의 성령체험이며 이는 바로 능력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예수 믿으며 1차 성령의 내 주하심을 믿지만 2차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정말로 사람이 변한다. 성령의 능력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시는 2차적으로 받는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성령 받는다는 것이 곧 방언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예언이나 진동이나 불이나 신유나 기적이나 강건이나 열심 등 많은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2차적인 성령의 능력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구할 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전도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이영환 목사는 둘째 날 저녁 집회를 통해 “나는 10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나 위축되어 살았다. 신학교도 무언가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복회 중에 한발대전에서 제일 가는 목회를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생각에 예수님만 사랑했다. 그렇게 했더니 복이 왔고 큰 교회의 목회를 하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유 없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라면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무조건 축복한다. 그러면 당 신에게도 축복이 올 것이다”고 전했다.

양병희 목사는 셋째 날 저녁 집회를 통해 “신앙은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삶이 변화하는 것이다.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첫째로 신앙의 마음의 변화이다.”

썩어져 가는 구슬을 버리고 마음의 질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변화

된다. 참된 변화는 노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된다. 둘째로, 마음이 변하면 생활이 주님을 닮아간다. 기쁨이 없었던 것도 기쁨으로 하게 되어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모든 것이 주님처럼 닮아가게 된다. 주님을 닮아가면 운우해지고 낙낙해지며 믿음으로 미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 변화의 증거는 마음의 평안이다. 어느 순간에도 마음이 평안해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평안이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이번 성회 마지막날 집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들이 많이 일어났다. 안수 중에 방언이 터지고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했으며 신유의 은사들을 체험했다고 간증했다. 또한 기도 중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솟아 올랐다고 성도들은 감격해 했다. 양수리수양관 여름산상부흥성회를 통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번 성회에도 모든이교회, 대구대영교회, 김천제일교회, 해린교회 등 55개 지역 교회들은은버스와 승합차 등을 타고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다. 한 성도는 “양수리수양관 성회를 안 오고는 견디지를 못한다”며 본 성회에서 은혜 받은 체험을 전했다. 특히 피영민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기도와 찬양이 뜨거운 본 집회가 가장 은혜롭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본 집회기간에 초등학교 여름캠프가 벌일관에서 열려 강남중앙침례교회와 미자립교회 어린이 약 4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며, 집회에 전념하도록 유아 탁아실도 운영되었다. 수요일 오전 12시에는 침례식이 거행 되어 25명의 성도들이 양수리수양관 야외 침례당에서 침례를 받았다.

강남중앙교회의 양수리수양관은 매년 겨울과 여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기획 운영하여 20여 년이 넘게 지속되며 이미 한국의 대표 성회로 자리잡았다.

특히 많은 한국의 성회가 목회 방법적인 세미나 등으로 변해가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교회와 민족을 살린다는 믿음아래 오로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위해 준비 기뻐하고 있다. 2010년 신년성회는 1월 4일부터 3일간 열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아름다운 감동이 시작되는 믿음의 기업"

마지막 가시는 부모님께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다?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

막상 닥치고 보면, 당황스럽고 절차와 금전적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어느 누구에게 의논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 상조이행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삼성해상배상책임보험 가입
- ◆ 24시간 전국 어느곳에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 ◆ 회원은 빈소, 접객실이용료, 음식, 장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 ◆ 임종에서 장지까지 모든 행사를 저희가 책임집니다.

20,000원 X 120회면 걱정 끝!!!



불우이웃 무료장례 선교위원
장례위원장 정 기 남

무의탁 노인의 장례를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2006년 수도권 각 교회 멘토링 세미나 후원
- 2007년 전국교회 전도세미나 및 전도월제에 1,000대 무료중정
- 2008년 전국교회에 웃음치료 세미나 후원
- 2009년 전도간증왕 초청 무료 간증 후원

※ 강사료는 저희 회사에서 일체 부담해 드려니 교회에서 비용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문의: 032)329-3755~8

〔주〕전국종합기독교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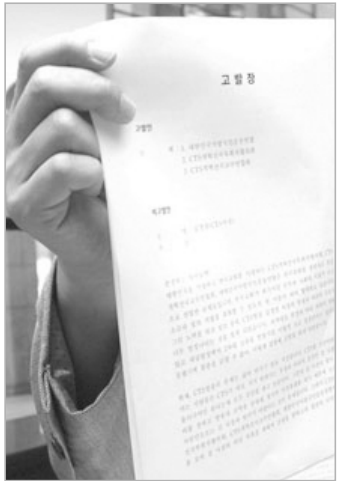
www.kdsangjo.co.kr 24시간 콜센터: 1577-4415

지저스타임즈 장례위원장 정기남 011-468-6574



기독교TV 감경철 사장 비리의혹 다시 논란

합동측 조사위 “비리 상상초월”... CTS “터무니없는 음해”



▲ 합동측 남평양노회 CTS 조사위원회가 검찰에고발한다는 내용

기독교TV(CTS) 감경철 사장에 대한 비리의혹 논란이 교계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예정 합동 CTS조사위원회 등 소위 CTS측 감경철 사장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감 사장 개인행위의혹과 리베이트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CTS측은 이미 2004년도에 모두 제기됐던 문제들이라며 지금 와서 다시 제시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러운 음해’라며 맞서고 있다.

예정 합동측 남평양노회 CTS조사위원회(조사위) 등은 2009년 8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TS 감 사장의 횡령 및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예정 합동측 남평양노회의 김승식 목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공동 기자회견문을 그대로 낭독하며 회견을 진행했다. 이 문건에서 조사위는 “1년간 CTS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했는데 감 사장의 재임기간 동안 횡령과 비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하고 거대하다는 데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위가 밝힌 감 사장 비리의혹은 ▲ CTS신사육을 건축하면서 한국교회와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엄청난 후원금을 받았음에도 그 돈을 횡령해 세상법정에서 두 차례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 CTS는 조은닷컴과 공동소유주로서 신사육을 건축하였기에 공동원가로 공평하게 분담받아야 함에도 CTS는 지하와 고층을 배정하는 하향원가로 부당하게 배분을 받았다.

▲ 100억대의 장비와 시설공사를 수의계약계약식 입찰 등이 아닌 상대방을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으로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 ▲잠지공원 매각이나 LA지사 설립 및 운영,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자료를 종합해 보면 감 사장의 횡령행위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피파를 흘려 세운 CTS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위는 “CTS가 살기 위해서 감 사장은 지금까지의 비리의혹을 날마다 밝히고 사죄하며 물러나야 한

다”며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대검찰청에 감 사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우익 단체 회원 500여 명이 모인 집회 장소에서 진행됐다. 교계 기자들 약 4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 기자들은 조사위측의 낭독이 끝난 후 “감 사장이 횡령했다는 금액의 규모를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사위측은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며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밝혀겠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공동 기자회견문은 물론 각종 비리의혹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조사위측은 이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장에는 교계 기자는 물론 CTS 홍보실 관계자와 류제국 부사장이 모습을 나타냈다. CTS의 류제국 부사장은 “최근 합동측 CTS 조사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보냈고 입장을 표명했다”며 “모두 해명한 사안인데 또다시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류 부사장은 “CTS의 사육건축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모 단체가 2004년 고발했으나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의 철저한 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며 “합동측 조사위가 제기한 의혹들은 당시 고발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류 부사장은 “수년 전에 모두 확인, 해명된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는 저의가 의

심스럽다”며 “CTS가 잘못했다면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은 한마디로 터무니 없는 음해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전국에서 2만1천여 명이 보낸 사육건축 후원금이 55억원이다”며 “조사위측은 CTS에 55억원 이상의 거액이 후원금으로 들어왔고 그 차액을 감 사장이 빼돌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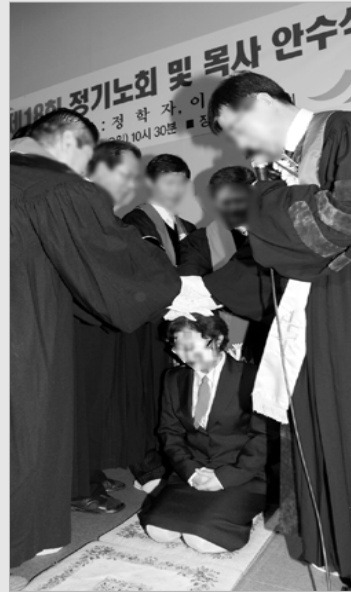
CTS측은 또한 예정합동측 CTS조사위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문건에서 CTS측은 100억원대 방송장비 수의계약에 대해 “100억원대 넘는 장비와 시설공사를 행한 적이 없으며 2~3배 비싼 가격으로 구매했다는 것은 막대한 낭설이다”고 답했다.

잠지공원매각 과정에 대한 비리의혹 등에 대해서는 “잠지공원은 사육건축과 무관한 조은닷컴측의 땅이었지만 담당자의 오류로 CTS사육건축을 위한 원가예산에 포함된 것을 조은닷컴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다”며 “그러나 CTS가 부담한 원가에 그간의 이자를 합쳐 2008년 3월 환불받았다”고 답했다.

CTS측의 강경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합동측 남평양노회 조사위측은 다음번엔 좀더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예정 합동측 CTS조사위도 CTS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CTS측 또한 금명간 조사위측 비리의혹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자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인해 CTS 감경철 사장에 대한 비리의혹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성 안수’ 성서적인가 아니면 비성서적인가



한국 교계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공론화됐던 이슈지만 여전히 여러 교단에서 현재 진행형인 문제이기도 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33년과 57년 각각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도 94년 총회에서 여성 안수를 가결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은 아직도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서로 돌아가자는 모토로 환원운동을 벌이

고 있는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회장 이강령 목사)가 최근 서울기독교대학교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단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오는 9월21일 협의회 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여성 안수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고 성서적 차원의 접근을 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장성영 서울기독교대 교수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명칭적, 창조적, 은혜적 측면에서 평등하지만 성(性)적 구별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의한 위치와 사명 또한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일반적 직분은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성경에 안수(기름 부음)하는 성직만은 모두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을 안수해 목사나 장로로 세우는 것은 비성서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조동호 목사는 “성경에서 여성 목사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나 구원론의 관점에서서는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조 목사는 “현재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그 추세를 비켜갈 수는 없다”며 “근본주의 노선을 걷는 몇몇 교단을 제외한 복음주의 노선을 걷는 대부분 교단들이 여성 목사안수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장벽을 허무셨으며, 차별 없이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사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다”면서 “구원에도 차별이 없는데 주님의 일꾼이 되는 일에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기독교법조인들 ‘하나님 신뢰하며 소명 다할 것’

기독교법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다짐하며, 법률가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독교법조인들 한 자리에 모여 법률가로서의 소명 세로이 다져 기독교법률가회(CLF, 이사장 윤세리 변호사)는 6~8일 인천 서구 불로동에 위치한 김포수정 교회에서 ‘제1회 CLF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생존을 넘어 소명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기독교법조인들과 법학교수 등 현직법률가를 포함해 로스쿨 학생 등 예비법률가 240여 명이 참석, 기독교법조인들이 부딪치는 현실적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법률가로서의 소명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 주제강연을 맡은 박상은 이사장(한국누가회는 ‘섬기는 리더십과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기

독전문인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을 조언했다. 또한 김형국 목사(나들목교회)와 송인규 교수(합신대)가 강사로 나서 ‘기독교법조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나라를 구현해 가는 방법’과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들’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생존 파트와 소명 파트로 나뉘어 진행된 세미나와 조별 모임 등을 통해 ▲개업변호사·로펌변호사·사내변호사·여성변호사·예비법률가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으며, ▲기독교법조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선교 활동과 ▲기독교로움의 운영방식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발제와 토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준비위원장 태원우 변호사는 “부와 명예의 상징처럼 인식돼 온 법률가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초월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공동체성을 정립하

자는 게 이번 대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기독교공동체 활성화시켜 소명 기반 든든히 해야 이번 대회에 참석한 기독교법조인들은 생존 경쟁이 내날이 치열해지는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독교인의 소명을 다할 것과 ▲기독교공동체를 형성해 이러한 소명을 든든히 지지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송인호 변호사(CLF 예비법률가위원장)는 기독교법조인에게는 ▲사건 당사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소명’과 ▲특별한 직업적 특성을 수반해 오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두 번째 소명은 각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스스로 기도하며 찾아야 한다”며



▲이번 대회는 생존 파트와 소명 파트로 세미나가 나누어 진행됐으며, 기독교법조인들의 소명 강단에 필요한 노력들과 함께, 이들이 현실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뉴스미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생활과 공동체를 통한 꾸준한 교제를 통해 소명을 발견하고 감당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재준 변호사(법무법인 소명)는 “기독교법률가들은 성공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의 요구 사이에서 충돌을 겪는다”면서 “법률 직업에

라고 밝혔다.

1999년 창립된 기독교법률가회(CLF)는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출범 당시 참여한 기독교법률가들의 정기모임이 발전한 것으로, 현재 기독교법조인·법학교수·관사·검사·예비법률가 등 1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징

- 날마다 전도하는 전도형교회로... · 정착률 높은 전도시스템
- 종래 초청전도를 완전 개혁한 전도시스템
- 민족복음화를 앞당길 기발한 전도시스템
- 한국도농선교회 회원수 장로가 18년간 현장전도경험과 1,500교회 전도집회 한 교회 탁월한 전도법. 일본에서도 제일 전도 잘되는 전도법 국내 부흥한 교회 전도법을 집성하여 기발한 전도시스템

■ 일 시 : 2009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 오후 5시

■ 장 소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02-747-7370)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2번 출구 연동교회 뒤)

■ 대 상 : 목사, 사모, 성도 (담임목사님 함께 참석, 선착순 100교회만 등록)

□ 등록비: 당일 · 사전등록 10,000

□ 주 최 : 한국도농선교회 053-961-0691~3

□ 후 원 : 국민일보, 기독교신문, CBS, CTS

특별강사 / 박재열 목사

주강사 / 최원수 장로

- 샌프란시스코 기독교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선교학박사
- 총회신학연구위원 전도학 교수
- 전도 엑스포(15차)장사
- 전도집회(1,500회)장사
- 기독교태상
- 전도세례사
- 한국 도농선교회 본부장
- 공회교회장로

간증강사 / 임동호 선교사 (요한요코하마교회)

전도가 힘든 일본에서 가본 성도수 10%~30%대주 전도하여 20%정도 정착시킨 생생한 간증이 있습니다.



박영남 목사

칼럼

21세기 글로벌시대

‘무엇이 진정한 힘인가’

하나님께서서는 상징들과 은유들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의 가슴에 쉽게 이해시키기를 기뻐하신다. (호 12:10). 모형, 비유, 그리고 상징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매우 풍성하게 설명해준다. 이것이 성경 자신의 본질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A. 자연계를 통해 주어지는 상징들

너무나 관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상징들을 통하여 하늘의 진리들을 세상에 살고있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달해 주신다.

1. 바람(Wind)

바람은 볼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인간적 통제력으로 수정될 수 없고, 다만 그 결과들로부터 알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결국 성령님의 신비로운 중생 사역에 적합한 비유이다(전 11:5). 즉 성령님은 그의 활동들 안에서 보이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느껴진다.

1) 성령님의 신비로운 중생의 역사를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요 3:8). 신비로운 거듭남을 상징한다. 2)성령님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강림하심을 설명한다.

특히 누가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을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다”고 묘사한다(행 2:2). 여기 “강한(Mighty)”이라는 표현은 성령님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상기시켜주며, “급한 (Rushing)”이라는 말은 능률적으로 속 깊은 곳까지 접근하심을 함축한다. 마치 회오리바람 (tornado)처럼 완전한 정령을 상징한다.

3)성령님의 조용하면서도 힘찬 영향력을 설명한다

이처럼 성령님은 강력하게 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불처럼의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게 임하시기도 하신다(행 16:14). 에스겔은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한다. “생기(wind)가 사방에서 와서 사방을 당한 자들에게 불매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겔 37)와 곧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이 솟아나는 신비함을 느끼며 살아간다.

2. 물(Water)

물은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을 가장 보편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다. 특히 성령님의 무한정하게넘치는 축복들을 상징한다.

1)물(water)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말하는데, 성령님의 씻으심과 깨끗

케하심과 재충전하심을 상징하는데 인간 영혼의 깊은 욕망과 갈증을 만족스럽게 채워주시를 말한다(요 4:14). 또 정결케하심과(겔 36:25-27), 생명과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과(47:1-12), 기쁨을(사 12:3) 상징한다.

2)강물(rivers)

“성령님은 곧 생수의 강이시다”(요 7:37-39). 여기서 강을 말할 때는 언제나 복수를 쓴다. 이것은 곧 성령님의 다방면의 사역을 지칭한다. 즉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은 “다양성”(diversity)이다.

3)시내(floods)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사 44:3). 노아 시대에 홍수가 범람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축복으로 넘치게하실 수 있다(제 21:4). 즉 성령님의 공급하심의 넘쳐도록 풍성함을 말한다.

4)비(rain)

“그는 비같이 임하시리라”(사 72:6). 비가 없음은 기근과 흉년과 황폐를 뜻한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비처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말한다. 성령님은 사막을 변화시켜 ...장 마뚝을 만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신다(사 35:1).

5)샘물(springs)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나의 모든 근원(springs)이 네게 있다 하리로 다”(사 87:7). 이런 상징들에 근거하여 볼 때 성령님은 끊이지않는 공급자이다. 이처럼 성령님은 모든 영성의 창조자이다.

6)이슬(dew)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호 14:5). 이것은 곧 비밀스럽고 눈에 띄지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말한다. 그래서 그는 아침의 새벽이슬이다.

3. 불(Fire)

성경에서 불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쓰인다. 그러나 가장 일관된 상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성품을 뜻한다(신 4:24, 히 12:29). 성경에서는 여러 번 성령님을 불로 설명하는데(사 44), 특히 “불처럼 갈라지는 혀”로 설명된다(행 2:3, 눅 12:49, 계 4:5). 불은 따뜻함을 상징한다. 정결케 함(성화)을 상징한다(바람이나 불이 정결케할 수 없는 것들까지) 빛을비추임을 상징한다. 즉 성령님의 조명과 밝히주심을 뜻한다(골 1:17, 히 6:4) 뜨겁게 함을 상징한다. 성령님의 능력은 차가운 심령을 뜨겁게 한다(골 5:5) 능력을 상징한다. 특히 성령님의 활동적인 능력을 지칭한다(행 2:3, 례 9:24, 10:2, 말 3:2, 고전 3:13,14).



“1구좌 1만원 후원 천사가 되어주십시오.”

농협 계좌 455030-56-005509(예금주: 정기남)

대한기독교사진가협, 장수사진 봉사로 전도결심
불러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협회장 임영수 목사(사진은 지난 달 24 일(금) 강원도 속초시 죽왕면 문암진 1리 새문교회(담임 송석규 목사 52)를 방문 오전 9시부터 사진협회 회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자원봉사에 나섰다.

문암진 1리는 인구 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바닷가 운치가 있는 곳에 작고 아담한 새문교회가 마을에 빛이 되고 있고 장년 25명, 주일학생과 중고등부

를 합하면 5-60명의 성도들이 모여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듣고 있다.

코넬천원목사에 의하면 '이 교회에 올 여름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전하면서, 외국으로 비전트립을 나가는 대신, 인양 대광교회(통합, 임영수 목사 청년회는 그 에너지가 시골 작은 마을에 쏟을 것을 결심. 지난 7월 23-25일까지 문암진 1리 새문교회를 정하고 봉사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일찍 도착한 청년들은 새문교회의 벽을 새로 칠하고 동네를 돌며 쓰레기를 치우는 등 청소를 시작했다. 한편 24일은 동리 어르신들을 마을 회관으로 초청하여 머리를 커트해 주고 염색을 하며 준비해간 공연으로 마을 어르신들을 위로해 드리는 가하면 점심대접은 정성을 다해 마련한 추억이 었다.

이날 교회에 모이려면 주저할 분들이 많아 마을 회관으로 장소를 정한 것은 새문교회 송석규 담임 목사의 생각이었는데 그것은 적중했다. 동네 어르신들이 거의 다 모인 것이다.

송석규 담임목사는 청년들과 계획을 마련해 놓고 대광교회 임영수 목사가 대담한 사진작가라는 것과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회원인 것을 알고 장수사진을 다진해 온 것이다. 임 목사는 기쁘게 받아들여 협회 게시판에 봉사할 회원들을 모집했고 휴가 중인 회원목사와 집사 가정의 합류하는 등 급하게 봉사팀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것을 자비랑으로 준비한 사진 봉사팀은 장비를 싣고 속초를 향했다.

오전 9시가 넘어 마을회관에 도착하여 촬영에 필요한 세트를 펼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진관에 들어선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양쪽에 조명 등이 설치되는 등 훌륭한 세트가 완성되었다.



▲ 회관으로 모여든 동네 어르신들

처음에는 노인들이 머뭇거리면서 섰 나서기를 주저했다. 이렇게 훌륭한 세트에서 사진을 찍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내 그것은 무료이고 봉사인 것을 알고는 한 분 두 분 끊임없이 모여들어 50여 명이 촬영을 했다.

점심식사 후 새문교회에서 출장사진을 요청했다.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영정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간절히 요청한다고 해서 사진 봉사팀은 흔쾌히 허락하고 기쁨을 방문 사진촬영을 하기도 했다.

촬영을 하고 포토샵에서 약간 수정을 거친 뒤 새문교회 담임목사에게 파일이 전해질 것이다. 사진을 인쇄하고 액자에 넣어 본인에게 전달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새문교회의 권리이다. 이날 마을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은 한 걸 같이 교회를 청송했다. “머리 해주고 염색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점심도 주고 공연도 해주니 이래 좋을데가 어디 있나. 참말로 교회가 고맙네.”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물론 이 모든 봉사는 대광교회가 준비한 것이며 사진가협회의 자발적인 봉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봉사로 지역교회가 청송을 받고 복음전도에 큰 힘이 되었다는 새문교회의 격려를 듣고 임영수 회장은 이런 봉사를 낸 중 어느 때라도 요청하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약속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참여한 회원들은 참으로 보람이 컸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사진으로 복음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깨닫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다.

또한 지역교회가 다른 봉사활동 계획이 있어 장수사진 봉사를 결정한다면 전도에 크게 효과를 얻지 않을까하면서 또 그런 교회가 요청한다면 기꺼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수사진을 원하신 분들은 대한기독교 사진가협회(http://www.christianphoto.co.kr) 협회장 임영수 목사, 코넬천원목사(choung2@hanmail.net)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목사(JTNTV.KR) jgn88@paran.com

연락주시면 장수사진을 비롯 이, 미용도 봉사를 약속해 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 제휴 코람데오닷컴 연합



▲ 기쁨으로 이발과 염색 봉사를 하는 대광교회 청년회

2009학년도 2학기 신입입생 모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음성이 아니면 당신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신자학교가 있습니다.

1. 모집과정

과 정	구분	수업연한	전형자격	비고
연구원	목회신학석사(M.Div.)	3년	4년제 대학교나 신학과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 신학 6년 이수자는 2학년에 편입	주간: 계절학기(여름, 겨울) 야간: 월, 화, 목, 금
	목회학석사(M.A.)	2년	4년제 신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자	
신 학 원	신학사(B.Th.)	4년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아동복지사 2급, 노인복지사 2급, 장애인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여교역자(B.Div.)	3년	고졸 졸업(예정자) 및 동등 자격 인정자	
	평신교교육과	2년	학력제한 없음, 졸업 후 신학과 입학자격 부여, 고졸자인 경우는 신학과 2학년에 편입	
	사회복지학과	2년	고졸자	

2. 전형일정

원서접수 : 연중 계속
원서교부 : 본교 교무과 (061)242-1617

3. 제출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사진 4매

4. 특 전

- 1) 연구원 졸업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 2) 신학과 졸업생은 연구원 과정에 진학
- 3) 사회복지과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및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장애인복지사(민간) 자격 취득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 조광표 박사(D.D.) 연구원 원장 : 모상현 박사(Th.D.)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 061)242-16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94회 성총회



담임 목사 조 광 표

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



(530-35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 학장실 : 061)242-1617

자 택 : 061)274-1808 / 핸드폰 : 011-631-1977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업인(영광기업)’ 대표 정학영 장로

힘한 시련의 비바람 속에서도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은 내게 헌신할 기회를 주셨다는 정학영 장로

아직도 부족하다며 말씀을 여는 영광기업 대표 정학영 장로. 그는 우람한 체구에 결단력이 강한 기업인이지만 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눈물도 많은 사랑의 종, 기업가인 장로이다.

영광기업을 운영하는 정학영 장로. 그는 충남 대천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지만 유난히도 아버지가 시무하는 교회는 매우 어려웠기에... 그때 가난이 싫어서 인문계 대신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일본을 자주 다니며 복사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재주가 좋아서 저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는 입념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결단에서 완전 장사꾼이 된 것입니다. 하지

만 사업은 몇 번의 실패를 겪어야만 했고, 그럴 때마다 실패의 아픔과 좌절의 깊은 터널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 인생은 항상 평하게 빛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때까지 방황의 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방황의 깊은 구렁으로 빠져 있을 때 내게는 엄청난 절망의 종소리, 극한 시련의 종소리가 자신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때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당시 교회주보 인쇄가 사업이 잘 되고 많은 돈을 만지게 되자 성미가 피죽기를 좋아해서 세상 친구들이 모여 들었고, 금기가 예수님을 멀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죽다 살아난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

니다. "아들 셋 중 둘째아들 모세가 10개월 됐을 때, 금 요집회를 불참하고 유전지로 가족들과 놀러 갔었습니다. 유원지 평상 위를 엉금엉금 기어 다니며 놀던 아이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곧 자지러질듯 울어대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아내의 비명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가족들과 먹을 음식을 하기 위해 마련된 팔팔 끓는 솥에 아이가 놀다가 빠진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들쳐 업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향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연거푸 토해내며 기도했다면서 정 장로는 눈시울을 적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만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6개월을 보내야 했고, 그 기간에 정 장로는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었고, 그 동안의 자신을 내뱉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얼마나 울었던가... 기도하고 매달렸던가... 인간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건만 마치 나 스스로 이뤄낸 것으로 착각을 했던가... 불순종한 내 어려움으로 아이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신 만큼 남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기도했고 어려운 교회의 주보를 무료로 제작해 주기 시작해 오늘의 영광기업에 이르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 그는 가장 존경하는 대상은 자신의 아내라고 말한다. 타 교회에 집회를 가서도 존경의 대상이 아내라고 간증한다. 정 장로는 자신의 단점을 이렇게 말한다. 저는 다 할집이면서 성질이 급한 편이요 그 결과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 저를 아내는 기도와 내조로 온전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지금도 아내는 지난 10년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강단에 꽃꽂이를 하면서 언제나 묵묵히 인쇄와 기도로서 봉사하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 저에게 남다른 감동과 저를 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줍니다. 한사랑 라이온

스는 많이 벌여 제대로 사용하자고 했는데 이 단체는?

Q (주)영광기업 대표 정학영 장로는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한사랑 라이온스 클럽을 결성하셨는데, 지금도 이 클럽에 속해 있으며, 이 단체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A "이 단체는 '말이 벌여 제대로 사용하자'는데 뜻을 같이한 사람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한사랑 라이온스 클럽은 30대 벤처 기업가, 의사, 변호사, 전문분야에서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며, 첫 사업으로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6명에게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이런 선한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Q 어려운 교회의 주보를 무료로 제작해 줄 수 있게 결단을 가진 것은?

A "제가 아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은 것은 그때부터 주신 만큼 남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교회의 주보를 무료로 제작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안돼 주보조차 만들지 못하는 교회가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뜻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사무실은 무료주보를 찍기 위해 온 사람들로 가득하며, 100여 교회에 영광기업 정 장로를 찾아오는 500부 넘게 찍어가는 교회도 있어 때론 직원들의 불만도 있지만 정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회사가 되자고... 그 결과 매주 토요일은 매우 바쁘다고 말한다. 또한 정 대표는 이런 혜택이 끝고루 돌아가도록 서울(02-2690-2580)뿐 아니라 인천(032-867-2580), 부산(051-892-2580), 광주(062-375-2580), 대구(053-257-1114)에서도 무료로 주보를 제작해 드리는데 확대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정학영 장로

제가 가진 것은 복사기와 인쇄기 기술뿐입니다. 비록 남들과 비교 했을 때 하찮은 물건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가진 인쇄기 기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의 발전을 돕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영광기업은 곧 정 대표 자신이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주)영광기업은 주보, 원금봉투, 전도지 등의 다양한 인쇄물을 선명하고 빠르게 찍어내는 인쇄기를 교회의 필요에 가장 적합하게 개발하고 시중가격 보다 약 40% 저렴한 가격으로 교회에 보급,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보급한 수익금의 십일조를 교회에 되돌려 주는 등 전한 감동을 전해주는 기업인 장로이다.

정 장로는 영광기업의 기업 마인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주)영광기업의 대표번호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쉽게 전화를 걸 수 있는 1588-0691, 11번 0691은 한글 발음으로 영육구원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문서선교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는 나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처럼 영광기업의 기업 이념은 오직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돈을 벌은 후에 베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을 주 하나님께 드리자가 바로 기업이념의 핵심임을 밝혔다.

■영광기업 대표 www.jubo114.com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최저(초) 칼라 복사기 A3 20매

200만원대 출시기념!

흑백기 가격으로 칼라기를 쓴다!

100대 한정판매실시 **6,600,000원 → 2,990,000원**

※빌려서라도 이번 기회에 꼭 구입하세요.
(36개월 할부, 중고복사기 보상)

신개념 출시

이제 교회도 FULL Color시대입니다!!
세계최초 최대 1m 20cm 출력!

Color 200
A3 단면에 자동 양면 칼라 / 흑백 출력 복사 & 프린트!

Q. 칼라도 컬러가 비싸다구요?
A. 제생도너들 공급해 드립니다!
*표준화, 통재리, 알맹기, RADF, Fax, (Option)

가격 ↓ DOWN
성능 ↑ UP

8가지 기계종 하나로
모든 부서 인쇄비용 단감대로 ok

교회의 모든 인쇄비용 단감대로 ok
누구나 쉽게 치환 만드는 교회인쇄물

Digital Full Color 시대 교회부흥 파트너

2009 Upgrade GLORY

교회와 함께 15년을
"15주년 감사 대잔치"

업그레이드 영광으로 대한민국 제일의 컬러복사기 가격신화를 만들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도 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귀 교회의 부흥 성장에 한 축이 되어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주식회사 영광기업 | 1588-0691
Glory Enterprise Co., Ltd. | www.jubo114.com

C-P: 010-5779-0691, 017-332-3217 Tel: 021764-5890~2 서울시 중로구 효자동 51-3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 50여종의 교회에 필요한 사무기기가 전시 되어 있습니다.

교갱협 “총신대 총장 조속히 선출해야”

예장합동 900여 목회자, 영성수련회 갖고 총회 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



▲ 교갱협을 이끌고 있는 김영원 목사

예장합동 갱신그룹목회자 모임인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교갱협, 대표회장 김영원 목사)는 17일부터 19일까지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9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영성수련회를 갖고 총회의 권위 회복을 주장했다.

교갱협은 “우리는 교갱협이 정치세력화되는 것은 지양(止揚)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교단정치가 바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로 교단의 새로운 발전에 위해 끊임없이 정적 비판과 창조적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며 총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갱협은 성총회의 권위의 회복을 주장하면서 “93회 총회이후 일어나고 있는 교단 내 여러 가지 파행적 양상은 총회 결의 정신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제상법정의 판단에 따라 총회현장에서의 결의내용이 반복되고 총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교갱협은 “94회 총회를 통해 총회가 절차적 합리성을 회복하여 총회결의 정신을 다시 살리고 성총회의 권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원선 거제도의 개선방안 모색도 주장했다. 교갱협은 “현행 총회 임원선거제도인 예비선거는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차선택으로 선택된 제도”라고 말하고 “따라서 예비선거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약점들을 보완하면서 타락선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금권 총회에서 모색되기를 바란다.” 밝혔다.

1년 이상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총신 사태의 조속한 해결도 촉구했다. 교갱협은 “제4대 총신대학교 총장선거와 관련한 끝없는 난맥상은 총신대학교 총장직이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정치적 갈등과 권모술수, 야합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악화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총장을 선출하는 이사와 총장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들을 비롯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성원들



▲ 교갱협 수련회에서 이정익 목사 (신촌성결교회)가 설교하고 있다

이 사임을 내려놓고 선지동산을 새롭게 할 인물을 조속히 선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면한 교단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적으로 집중적인 기도운동을 펼쳐 나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6일을 기도주일로 지키며, 교갱협 산하 각 지역협의회와 개교회별로 마음을 찾는 회개와 무릎을 꿇는 기도회를 총회 개회 전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교갱협은 1996년 3월 7일 육한을 목사가 중심이 되어 출범했다. 교갱협을 필두로 각 교단에 갱신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연합체인 한복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교갱협은 “앞으로 더욱 연대의 끈을 공고히 하여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소속한 교단,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한 전방위적 교회갱신에 구체적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사진: 기사 뉴스파워

김병삼 장로 5억 상당, 법인 설립해 기증



한국교회는 선교 120년이 되었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 속에서 다종교에 비하여 짧은 선교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앞장서서 봉사하고 섬기는 종교이다.

교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한 이면에는 교인들의 ‘자기희생’이라는 덕목이 자리 잡고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사회와 교회 발전을 위하여 기쁘고 헌신한 것이 기초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평신도 지도자들의 아낌없이 내어 놓는 숭선수법이 교회와 사회의 상호 작용에 밑거름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우리 회장이었던 고 최태섭 장로, 영락교회 원로 최정근 장로, 복산그룹 회장 고 김인득 장로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 한국미디어선교회 사무총장 김병삼 장로(78세)가 26년 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한국교회를 섬겨 오던 차, 한국미디어선교회를 지난 7월에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화하면서, 자신의 유무형의 자산 5억 원을 평가받아, 법인에 기증한 것이다. 이것은 26년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 인정된 것이며, 현금보다 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병삼 장로는 1983년 한국미디어선교회를 설립하면서, 평신도들이 성경과 기

자신의 자산 교계 발전을 위해 기부해 귀감

본적인 신학을 가정과 교회에서 편리할 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착안하여, 국내에서 유명 신학 교수를 강사로 비디오 교재를 만들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을 집대성 교육하기에 알맞도록 만든 것이다.

김 장로는 이것을 사비(私費)를 들여 제작하여, 보급해 온 것이다. 이 교재는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지금까지 22개 과목으로 이루어진 교재로 공부한 사람만도 10,000명이 넘고 있으며, 현재도 15,000명이 공부하고 있다.

이 교재는 북한의 조선그리스도연맹을 통해 김일성대학에도 기증하였는데, 현재 북한에서 신학강좌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김병삼 장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국민일보, CTS기독교TV와 함께 하는 100만명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생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선교회를 통해, 신구약 66권 동영상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영상상품이 제작되면 기존의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비신자들에게도 기독교와 성경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하여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한국은 기독교 성도가 1,200만 명이라고 하나, 교회에서조차 성경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성경 각 권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급한다면 미디어 시대에도 맞는 신앙 교육이며, 성경에 기초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중요한 일이 된다.

이러한 자료는 국내에서는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계속 사용되고, 세계적으로는 13억의 인터넷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여, 세계선교를 돕는 일도 된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기독교인들의 활발한 사회 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숨은 공로자들의 기부를 통하여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김병삼 장로처럼 하나님을 주신 유무형의 자산을 기부하는 사례가 늘어, 밝은 사회와 한국교회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연락처: 744-4237)

- 한국미디어선교회 조직 -
(교무) 정진경 목사 조용기 목사 김창환 목사 (총재) 법인식 목사 (이사장) 원광기 목사 (이사) 김자현 목사 김병삼 장로 원광기 목사 이성희 목사 최상규 목사
(감사) 고원호 목사 문원규 목사

제14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성황’

8월10일~13일 서울 예정교회서 1000명 참석
“목회내조에 지혜가 생겼습니다”



“목회내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가 생겼습니다.” “남편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우울증 약 처방 받고 왔는데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시다.” “이렇게 행복한 느낌 처음입니다.”

“성도들의 봉사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등 수많은 간증과 열매를 거둔 제14회 전국 목회자사모세미나가 성황리에 끝났다.

지난 8월10일(월)부터 8월13일(목)까지 3박4일간 서울예정교회(담임 설동욱목사)에서 ‘건강한 사모행복한 목회’라는 주제로 숙박을 무료로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 국민일보, 목회자사모신문 주최로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0여명의 목회자사모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온 맘 다해 찬양하고, 서로 위로 격려하며 울고 웃는 가운데 3박4일의 은혜 넘치는 행복한 여정을 보냈다.

오미옥 사모(주사랑교회)는 “목사님의 목회에 대



하여 내가 도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들에 대하여 내가 도와주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응답받았습니다.” 신동혜 사모(아름다운교회)는 “지난해 사모세미

나에서는 영육의 질병과 고통으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시더니 금번세미나에서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소망이 더욱 커져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주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옥 사모(사방교회)는 “예정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하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식사기도 때마다 예정교회와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기도가 나왔습니다.”

김주경 사모(순복음비전교회)는 “우울증 진단받고 약처방의 권유를 받았지만 이번 세미나에서 치료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 잊지않고 모든 문제를 기도와 감사로 이길 것을 다짐합니다.”

김미화 사모(본동교회)는 “유아세례를 받고 사모가 된지 17년, 남들 다 받는다는 방언을 받지 못해 주님 사랑이 의심스러웠는데 금번세미나를 통해 기도중 방언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강의 내용은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자” 라고 했으며, 또한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 즉 정경의 아름다움,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아름다움을 갖자”고 했고 “가족이나 성도들로 인해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과 사모의 정체성을 잘 지키자”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끼쳤다.

한편 금번세미나를 주최한 설동욱목사(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 목회자사모신문 발행인, 서울예정교회 담임)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모님들이 참석하여 주간에 서로 목회자 사모로 부름 받음을 격려하고 축하하며 새 힘 얻어 돌아가는 사모님들을 볼 때 목회자사모세미나는 해마다 할수록 보람을 느끼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저와 진행위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은혜를 같이 받습니다.”라고 했다.

교회, 가정환경의 테두리 안에서 단조로워지고 무기력해진 목회자사모들이 금번 세미나를 통해 영·육간의 활력을 되찾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사모세미나는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깊이 느낀다.

2009년 소진우 목사 부흥성회 일정

항상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 | | |
|-----------|---------------------|------------------------|
| 1월 | 3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 20-23 남양주시기독교연합성회 |
| | 5-8 일산금란교회(주성민목사) | 27-29 광성교회(임대은목사) |
| | 12-14 홍산교회(김양섭목사) | |
| | 19-21 갈릴리교회(오덕주목사) | 5월 |
| | 26-30 필리핀선교집회 | 4-7 에스라선교제자훈련센터(이진희원장) |
| | | 10-13 봄철축복성회(예복교회) |
| 2월 | 2-5 해방기도원(백재욱원장) | 18-21 미쁜교회(이봉현목사) |
| | 6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 25-27 선교지방문 |
| | 9-11 옥산성경결교회(박병정목사) | |
| | 16-18 칠곡연합성회(김상호목사) | 6월 |
| | 23-25 대전소망교회(조성봉목사) | 1-4 인천마가다락방기도원(박보영목사) |
| | | 7-10 새롬교회(김대수목사) |
| 3월 | 2-4 도원교회(유순기목사) | 11 한빛교회(임선택목사) |
| | 축복대심방 | 15-17 청주기도원(강성진원장) |
| | | 22-24 완도순복음교회(장정환목사) |
| 4월 | 6-8 목양교회(주화순목사) | 26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
| | 13-14 정기노회 | 29-1 외국교회(장보웅목사) |
| | 14-16 이투리교회(이재경목사) | |

- | | | | |
|-----------|-----------------------|------------|---------------------|
| 7월 | 3 성소기도원(박정원원장) | 10월 | 12-13 정기노회 |
| | 5-8 새영교회(이영근목사) | | 13-15 서북교회(배경락목사) |
| | 13-15 산성교회(김장남목사) | | 18-20 생명의교회(백규식목사) |
| | 20-22 은현기도원(조은원장) | | 25-28 예광감리교회(류인덕목사) |
| | 27-30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원장) | 11월 | 2-3 신원교회(맹조영목사) |
| 8월 | 3-6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 | 9-11 임마누엘교회(김경정목사) |
| | 10-13 에바다응답기도원(최민숙원장) | | 16-18 선교지방문 |
| | 17-20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 | 23-25 경일교회(박조일목사) |
| | 23~25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 12월 | 7-9 신성교회(김병진목사) |
| 9월 | 7-11 온누리복음화수양회(엄기호) | | 14-17 해방수양관(백재욱원장) |
| | 14-16 열방교회(신보현목사) | | 20-23 한마음교회(신규대목사) |
| | 21-24 교단총회 | | |
| | 28-3 추석주간 | | |



강사 소진우 목사
010-5267-1434

- 로고스 세계부흥선교회 부총재
- 열방부흥선교회 대표회장
- 기독교방송 토크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대한예수교 장로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예복교회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265번지
전화 : 02-3391-9676 / 010-5267-1434